

교회 목표

- 1. 천국일꾼을 키우자
-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다"
(시18:1)

주간 충헌

발행인 : 신 성 종
편집인 : 윤 명 식
편집국장 : 손 경 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헌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000 FAX : 563-3932
사서합 :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14:23)

■ 추수감사절 메시지



기쁨으로 추수하려면

성경에서는 인생을 농부로 비유합니다. 농부들은 가을이 되면 추수를 기다리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추수 때가 되어도 농부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비료값, 농약값,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자신들의 노동비조차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인생의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사람은 농부가 아니라 해도 누구나 신령한 의미에서 추수를 해야 하는 농부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영적 추수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보좌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영적 열매를

더욱 많이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의 열매를, 이웃과의 사이에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그리고 내인격 속에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는 밭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또한 한 씨를 뿌린 후에는 물과 거름을 주고 잡초도 뽑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야 합니다. 땅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주인의식이 없을 때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는 추수할 수 없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을 추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땅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과 눈물뿐 아니라, 피를 흘리시면서 씨를 뿌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거두는" 축복과 생명의 면류관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92년도 가을을 맞이하여 충헌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92년 추수감사절에
당회장 신성종 목사

오늘은 추수감사절 영적 풍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성찬식 거행, 추수감사헌금도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충헌의 성도들에게는 감사할 제 목이 많은 해이다. 새로운 당회장 신성종 목사를 모시고 맞은 첫 해인 만큼 기대 또한 이전과 같지 않았고, 새해 벽두를 기도로 시작했기에 더욱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즉 교회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각으로 권사들이 24시간 연속기도회의 불을 놓았고, 이를 본받아 장로, 교역자와 모든 직분자들이 이에 동참한 것이다. 이런 기도의 힘을 바탕으로 배가운동을 전개하면서 태신자 갖기, 평신도 전도 특강, 구역장 훈련, 충헌전도대 교육 등 전도에 박차를 가하여 지난 11월 1일 92 예수 사랑 큰 잔치 때에는 7천여명이라는 놀라운 결실을 할 수 있었다.

교인 배가운동을 전개하면서도 충헌의 모든 교인들은 구제나 선교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어려움에 처한 LA 교민돕기, 사랑의 쌀 나누기, 사랑의 헌혈 운

동, 우리 농산물 먹기, 자원 재향 용 등에도 적극 참여했으며, 북한 선교를 재개하고 필리핀과 일본에 선교 방문단을 파견하였다.

이와 같은 가시적인 활동 못지 않게 우리들의 영혼을 기르고 살찌게 하는 데도 그 어느 해보다 열심이었다. 금요찬양집회나 10월 부흥회, 기도원부흥회를 통해 충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무미건조한 신앙 생활에 새로운 영적 힘을 얻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창인 원로목사의 수도노회 공로목사 추대나 제 26대 장로 장립도 빼놓을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다.

그밖에도 이루어야 할 수 없는 은총으로 충헌교회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는 신실한 자녀로서, 세상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로 결심하는

금년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한다.

충헌프리즘

◎... '92 예수 사랑 큰 잔치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결신카드를 제출한 사람이 약 7천명 이상이 된다고 집계되었다.

우리 교회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만나는 일, 전도 서한을 보내는 일, 심방하는 일들을 통하여 정식 등록교인이 될 때까지 인도자가 뒷바라지 하고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수송 편의까지 제공하는 열성도 보여야, 낙오되지 않고 꾸준히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잔치가 끝났다고 해서 일회용으로 모든 것을 내팽개치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와 결심으로 새신자 관리에 온 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할 때가 왔다.

◎... 지난 주일 오후 2시부터 있었던 새가족 환영회는 유례 없는 많은 신임 교인들이(약 1천명 정도) 참석하여 환영회는 큰 성황을 이루었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도 환영사에서 "새로 밀려 온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전제하고, "오늘부터 개인의 삶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도록 교회가 밀어주고 계속 기도해드릴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새롭게 충헌의 식구가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

◎... 우리 교회 시무 장로들의 명찰을 패용키로 하였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누가 장로인지 잘 몰라 성도의 교제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새로 오신 부목사나 전도사들도 많은 수

(타 교회에 비해)의 장로들을 잘 알아보지 못해 웃지 못할 일들이 종종 생긴다는 얘기도 있다.

이름표를 패용함으로써 장로들은 이전보다 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충성과 봉사가 가속화되어야 하겠다.

◎...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다.

비록 도시 교회의 교인들은 농작물을 직접 경영하지는 않았지만, 일년 동안 배풀어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된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오늘 사랑의 헌혈 실시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본당 앞뜰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이 전개된다.

차가운 날씨이지만 혈액이 모자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헌혈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교사 봉사자 지원

교육국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 자격: 18세 이상의 세례받은 지 2년 지난 등록교인
- 신청: 교육국(교육관 103호)

충현강단

폭풍을 잔잔케 하신 주님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들이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마8:23~27)

신성종 목사

1. 갈릴리 바다의 특징

여기서 살펴볼 갈릴리 바다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데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아주 편안한 곳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끔 산을 타고 찬 바람이 몰아치면 별안간 갈릴리 바다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갈릴리 바다의 성격입니다. 사실 바다라기 보다는 호수입니다.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를 가리켜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디베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디베랴 바다라고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이처럼 평소에는 평안하고 조용하지만 바람이 한 번 분기 시작하면 갑자기 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시험이 올 때 예고가 있습니까? 시험이나 고난은 갑자기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 어리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쳐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이 세상은 갈릴리 바다와 같다는 것을 먼저 깨닫아야 합니다.

2. 제자들에게 일어난 풍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언제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배를 댔을 때입니다. 육지에 있을 때는 바람이 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를 타고 바다 중간쯤 갔을 때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배는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배는 때때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때로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절부절하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배 안에서 평화롭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비교한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어부 출신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안절부절 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렇게 안절부절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두려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3. 본문에서 나타난 두 가지의 모습

첫번째로,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침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시28:1)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아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시35:22)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시83:1)

시편 기자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때때로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네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침묵하실 때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깝기도 하고 견딜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인내력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갈급해 하고 있는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침묵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예수님이 처절한 외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외면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침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만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인류를 대속해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신앙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겪습니다.

4. 예수님이 주무실 때 제자들의 행위
예수님이 주무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크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번째로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습니다.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자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들이 죽겠나이다”(마8:25)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들이 죽겠다고 하며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무셨을 때 깨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들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두번째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무서워 하느냐”(마8:26)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공포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까지 완전히 다 바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절대로 두려움에 잡히면 안됩니다. 가

장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려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어리석게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믿음이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마8:26)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장부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이 소유할 때에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 본문이 주는 교훈

첫번째로, 제자들에 의해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마8:26) 바다가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하실 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자연까지 지배하신 분이심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담하면 풍랑이 도망가고 기도로 소리치면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과 기도, 기도와 믿음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의 풍랑, 사회의 풍랑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시면 잠잠해집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시련의 풍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빨리 가라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배가 잔잔할 때는 평안하게 가지만 빨리 못갑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뜻을 잘 달면 바람에 밀려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직장, 교회에,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빨리 가라는 신호입니다. 주님께 더욱 의지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더 빠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요 열매의 계절이요 먹는 것이 많이 생기는 계절이다. 이 계절을 맞이해서 한국 교회는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예배를 11월 셋째 주일에 드린다.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이다. 당연히 신자로서는 드려야 할 예배요 지켜야 할 절기이다.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국 교회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전망을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한다(단, 추수감사절에 늘 생각해야만 하는 감사의 대상, 이유, 방법 등에 관해서는 본 글에서 다루지 않음).

1. 추수감사절의 유래

(1)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본 따 세워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 생활의 뿌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추수감사절에 관해서 구약성경에 말씀해놓은 것을 살펴보자.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들을 성경에서 열거해본다.

도표1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장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어떻게 그 절기를 지켰는가? 신명기 16장 13절~17절에 의하면 ① 모든 추수를 마치고 1주일 동안 ② 모든 사람 - 너, 너희 자녀, 노비, 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 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열면서 ③ 하나님께 힘껏 헌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다.

물론 모든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

도표1

절기	유대력	태양력	내 용
유월절 무교절	1. 14	3~4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기념일(예로부터 430년 동안 노예 생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3. 6	유월절 후 50일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보리 추수를 하고서 드리는 감사절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7. 15~21	9~10월	예로부터 내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부터 농산물을 제제하여 먹을 수 있었다. 그 광야 40년 텐트 생활을 추억하며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수전절	9. 25	11~12월	대답하전 성전을 BC 164년에 메가비가 깨닫게 하고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요10:22)
부림절	12. 14, 15	2~3월	바스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의 모퉁이로부터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9:21)

도표2

첫번 추수감사절	영국 제임스왕이 청교도들을 실향객 박해하자 이들은 1620년 180명에게 작은 배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씩 69명만 살아 건 항해 끝에 그 해 12월에 미국의 플리머스에서 정착하였다. 추위와 기아와 질병으로 절반 정도가 죽고만다. 다음해 11월 추수를 하게 되어 감격적인 감사예배를 드린다
와싱턴 대통령	1789년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박정
링컨 대통령	1863년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제정
루즈벨트 대통령	1939년 11월 셋째 목요일로 제정

따라서 우리는 장막절의 정신을 따라서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게 해주신 줄 알고 그 때 추수를 바치고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구약성경에서 찾는 것이 매우

타당한 일인 것이다.

(2) 미국인들의 추수감사절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그 뿌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 분명하고 그런 근거가 있음을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그 시발점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연유하였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어떠했는가?

도표2에서와같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출발과 더불어 형성된 국가적인 절기요 전통이다. 저들을 하나로 묶는 국가적인 합일체의 절기요,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생존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절기이다. 말하자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과 미국을 연결시키는 실감나는 절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3)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

한국에는 음력으로 8월 15일, 추석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성경의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한 이방민족인 한민족의 토속절기로서 가족끼리 모이고 송편을 빚어먹고 오곡백과를 장만하는 잔치이지만, 모든 것들이 조상을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숭배를 중심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미워하심

에 도달하는 절기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이제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자.

① 1904년 : 제4회 조선예수

교장회의 공의회에서 제정소장회의 제정으로 감사절 제정기로

정함(11월 10일로)

② 1914년 : 11월 셋째주일 후 수요일로 제정

③ 그 후 11월 셋째주일로 제정

이상으로 본 때 우리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장막절과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었을 때에는 무엇이든지 언제라도 고치야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에 의해 형성된 좋은 전통을 우리는 또한 가진다. 금주, 금연, 상한질, 부활절 같은 것들이다.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도 역시 성경에 근거한 좋은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2. 추수감사절의 전망

농경시대에 살든지 현대 산업 시대에 살든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농부에게든지, 광부에게든지, 어부에게든지, 사업가에게든지,

농민은 포도나무요 신자들은 포도나무 가지들이다(요15).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신자들은 양들이니(요10).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신자들은 자녀들이요(요1). 형제 자매들이니(골2:1;고전1:10,2:1,3:1,10:1;고후8:1).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신자들은 종들이니(마25:14). 그러다. 우리들은 모두 일꾼들이요 사명자들이다.

보편적으로 선한 일 중에서 더 귀한 일이 있고 더 천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잘못이다.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집사님께서, 집사직은 교회에서 성경에 맞추어 하라 하고 장사는 성경과 상관없이 하라 한다면 이는 잘못이다. 교회에서 전적으로 일하는 사임이라도 정욕으로 일한다면 죄악이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 교회에 영적 안락에서는 욕심과 정욕으로 해도 다 거룩하게 취급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큰 잘못이며, 성직 계급과 성직 아닌 계급을 나누는 것과 같은 일도 잘못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나라의 일을 일생 동안 하다가 본향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나라의 일을 시장에서

도, 병원에서, 학교에서도, 군대에서, 구정에서도, 국회에서도, 운전석에서도, 무역에서도, 쓰레기수거장에서,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거룩한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으로 선한 일은 영적에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하고(고전10:31), 마음을 대해서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한다(골3:23).

기독교인은

자신의 일터에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같이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다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남겨야 한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한 달란트 받은 종같이 게으르게 묻어두면 하나님께 악하여지는 농부요 예수

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의 열매에서 밭을 갈고 열매를 맺어주어야 하고 밭도 갈고 열매도 맺어주어야 하고 밭도 갈고 열매도 맺어주어야 하고 밭도 갈고 열매도 맺어주어야 한다. 이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다. 인내를 필요로 한다.

기독교인도 한 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신앙 인격의 성장된 모습이 열매처럼 있어야 한다. 그 열매란 사랑, 화락(기쁨), 화평, 인내, 자비(느그리움), 양선(착함), 충성, 온유(부드러움), 절제(조심함)를 말한다. 이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갈5) 인격의 모습이다. 나의 인격에 반드시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들이다. 이런 신앙 인격,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년도에는 금년에 나의 삶 속에 인내의 인격이 자라나 있어야 한다. 역시 충성의 열매도 자라나 있어야 한다. 그런 신앙 인격, 성령의 열매들이 추수되는 감사절이어야 할 것이다.

(3) 증인으로서의 추수

기독교인은 근본적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권능을 받고서 온 천지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에서 증인을 순교자로 번역했으면 뜻이 더 뚜렷했을 것이다. 기독교인은 순교자로, 언제 어디서나 전도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8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11월 1일에 한 것은 92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매우 뜻있는 추수감사절을 여었다고 생각해보자. 배해 우리는 증인으로서 서둘러서 전국 각지에 포아들에는 추수를 충성스럽게 하에서 이룬다고 풍성한 추수감사절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도 추수감사절은 계속 존속되어야 할 것이고, 한국 교회의 감사절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추수감사절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대망한다.

우리의 행성의 열매에서 매년 맺은 추수의 창고가 넘쳐야 하리라!

원격에서 맺은 추수도 풍성해야 하리라!

전도의 추수 또한 가득해야 하리라! 할렐루야!



성봉환 목사(세19교구 지도)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전망

(마25), 그러므로 우리는 생의 열매에서 밭을 갈고 열매를 맺어주어야 하고 밭도 갈고 열매도 맺어주어야 하고 밭도 갈고 열매도 맺어주어야 한다. 이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다. 인내를 필요로 한다.

(2) 신앙 인격의 추수

기독교인도 한 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신앙 인격의 성장된 모습이 열매처럼 있어야 한다. 그 열매란 사랑, 화락(기쁨), 화평, 인내, 자비(느그리움), 양선(착함), 충성, 온유(부드러움), 절제(조심함)를 말한다. 이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갈5) 인격의 모습이다. 나의 인격에 반드시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들이다. 이런 신앙 인격,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년도에는 금년에 나의 삶 속에 인내의 인격이 자라나 있어야 한다. 역시 충성의 열매도 자라나 있어야 한다. 그런 신앙 인격, 성령의 열매들이 추수되는 감사절이어야 할 것이다.

(3) 증인으로서의 추수

기독교인은 근본적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권능을 받고서 온 천지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에서 증인을 순교자로 번역했으면 뜻이 더 뚜렷했을 것이다. 기독교인은 순교자로, 언제 어디서나 전도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8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11월 1일에 한 것은 92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매우 뜻있는 추수감사절을 여었다고 생각해보자. 배해 우리는 증인으로서 서둘러서 전국 각지에 포아들에는 추수를 충성스럽게 하에서 이룬다고 풍성한 추수감사절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도 추수감사절은 계속 존속되어야 할 것이고, 한국 교회의 감사절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추수감사절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대망한다.

우리의 행성의 열매에서 매년 맺은 추수의 창고가 넘쳐야 하리라!

원격에서 맺은 추수도 풍성해야 하리라!

전도의 추수 또한 가득해야 하리라! 할렐루야!

카메라 초점



▲ 지난 11월 8일에 있었던 새가족환영회. 이 환영회에는 9월과 10월에 등록한 새가족들과 예수 사랑 큰 잔치때 결신한 새가족들이 참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다.

제19교구 '92 새가족 환영 및 송년의 밤

1992년도도 다 저물어가고, 1993년도가 저만치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의 성탄과 세모의 종소리를 앞두고, 저희 19교구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오셔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주제: "서로 사랑하라" (요13:34)
· 일시: 12월 1일(화) 저녁 6시 30분 · 장소: 만나홀(선교관 지하1층)
· 19교구(역삼동 652~656, 661~664, 672~674, 677, 681~705번지)에 사시는 분은 누구나 참석을 환영합니다. 각종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19교구장 정하우 장로

성경 일곱째권 - 사사기

1. 저 자

사사기의 저자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초대교회의 전승은 사무엘을 저자로 전하고 있다.

2. 연 대

사사기의 기록 연대를 사울 또는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초기 시기인 기원전 1050년~1000년으로 추정한다. 이는 여부스족의 에루살렘 거주(삿1:21), 게셀에 대한 언급(삿1:29),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기록(삿17:6), 실로의 멸망 예언에 대한 언급(삿18:31) 등의 기록을 근거로 추정한 것이다.

3. 성경상의 위치

70인역을 따르는 한글개역성경에서 사사기는 역사서에 속한다. 이 책은 가나안 진압 이후 군주 정치의 발흥 사이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험을 말해주는 유일한 성경 자료이다.

4. 목 적

첫째로, 사사기는 가나안의 정복과 왕정시대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 약 20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둘째로, 율법에 대한 순종은 평안을, 불순종은 압제와 죽음을 가져온다는 원리를 알려준다.

셋째로, 회개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주 제

첫째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과 종교와 문화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자, 우상숭배와 사악한 압제자와 기근이 그들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운 때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셨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

를 세우시어 강한 자를 치신다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삿6:15).

셋째로, 어떤 무기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없으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면 전쟁의 각종 병기들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넷째로,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와같이 자유분방하게 행동한다면 혼돈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오직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얻을 수 있다.

6. 개 요

- (1) 사사시대의 배경(1:1~3:6)
- (2) 사사시대의 역사(3:7~16:13)
- (3) 사사시대의 혼란상(17:1~21:25)

● 구역예배 ● '92 예수 사랑 큰 잔치 양육특별공과
(1992. 11. 20)

제2주 거듭난 생활

· 본문 : 에베소서 4장 7절~24절 · 찬송 : 204장, 208장
· 요절 :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단지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은 자라나야 합니다. 또한 거듭난 생명은 거듭난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거듭난 생명은 어떤 풍성한 새 생활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1. 영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 (1) 본문에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새 생명은 무엇이 요구됩니까?(엡4:13, 15)
- (2)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엡4:14)

· 출생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영적 성장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 영적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힘쓸 일과(엡4:21), 과감하게 결단할 소극적인 일과, 적극적인 일은 무엇입니까?(엡4:22~24)

2.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 (1) 야고보서 1장 2절~4절을 읽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시험이 기대되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련을 잘 인내하면 결과가 어떠합니까?
- (2) 우리가 시험을 받는 하나 주된 요인은 무엇입니까?(요15:18, 19)

또 주의해야 할 시험의 한 원인은 무엇입니까?(약1:14)

(3) 우리가 시험 중에 확신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고전10:13)

· 시험은 출생 직후부터 기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시험을 넉넉히 극복해나감으로써 그리스도를 더 잘 닮아갈 수 있습니다.

3. 거듭난 삶은 어떤 풍성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 (1) 죄 문제로 고민할 때(요일1:9, 2:1)
· 죄에 대한 자백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는 영적 교제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 (2) 필요한 것이 부족할 때(요16:24)
· 필요한 것을 받아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기본적 특권 중 하나입니다.
- (3) 현실 문제나 장래 문제에(잠3:5, 6)
·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범사에' 우리 문제를 그 분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용

- (1) 나는 영적 성장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라" (벧전2:2)
- (2) 거듭난 새 생명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풍성한 축복과 변화된 삶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록하여봅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10:10)
- (3) 나의 거듭난 새 생명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나의 자세는?
- (4) 거듭난 생활에 관한 위의 성구들을 암송하고 사용하십시오. 외우고 있는 말씀의 감으로 모든 의심을 물리치십시오.